

영광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정계선

『학력사항』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공법학과 졸업
- 영국 옥스포드대학 연수

『경력사항』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선거·부패) 부장판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사법연수원 교수
- 울산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1995년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I. 합격소감

수석합격의 소식을 들던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후에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뻐하시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쁨일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지긋지긋하게 속만 썩여드렸는데...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계선이에요.

아빠 딸 계선이가 수석이래요.

올해는 69년생 닭띠에게 삼재가 든 해라고 합니다. 평소에 믿는 편은 아니지만 신경이 쓰여서 새해 초부터 사소한 일들을 악재라고 치부하면서 빨리 액땀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각지도 않은 수석합격이라고 하니, 제 액운을 거둬가려고 아버지가 그리 급히 가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무를 수만 있다면, 정말로 무를 수만 있다면... 아빠,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언제까지나 지켜보아 주세요.

II. 고시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저는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줄곧 그 곳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며 갑작스럽게 큰 도시에 나와 똑똑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왜소하게만 보이는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다가 돌연 재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면서 이과에서 문과로 바뀌 1988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고시공부를 시작하기까지 4년여의 기간은 사회현실과 학생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내세울 만큼 뚜렷이 한일도 없고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치른 바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책임을 우리가 모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무거움으로 고민하였습니다. 집안문제나, 진로문제와 같은 것은 되도록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마찰이 가장 심한 시기이기도 했으며, 이후에 졸업을 앞두고 한꺼번에 그런 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만3년에 걸친 제 수험생활 기간 동안 저는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노력해도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 서점에 가서 합격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사를 엿보는 재미도 있거니와, 수험생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생활과 고민을 통해서 합격자와의 동질감으로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대로는 그 처절함에 덩달아 비장해져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합격기를 기면에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되니 제 합격기도 누구에겐가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신의 생활태도와 능력에 대해 끝

없이 회의하면서, 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낮게 생활하겠다는 몸부림으로 고시라는 터널을 지나온 한 사람이라는 점이 이해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

III. 고시생활

1. 1차시험을 처음 보기까지

1992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관운직 교수님의 민법총칙을 들고 도서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100페이지씩만 읽자고 다짐했건만, 책을 몽땅 외워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디부터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몰라 속만 끓이다가 책 한권을 한달 내내 넣고 다녔습니다. 이리다간 민법 한번 읽고 시험 치러 가겠다는 생각에 민총을 덮고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을 샀습니다. 하지만 점입가경이라고, 분명 한글로 씌어진 책인데도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채 20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어서는 이래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르치던 학생이 고3이었던 까닭에 과외하던 집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4년동안을 쭉 해온 집이라 정도 들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큰 불편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정도 가르치고 아침 먹고 목동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오면 7시 30분쯤에 법대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당시는 법대 도서관에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 그때쯤 학교에 가면 자리를 못 잡고 메뚜기를 하기 일쑤였지만 그 이후 3년을 통틀어 그 시기만큼 열심히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만큼 비장한 각오

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책을 보는데도 속도가 붙고, 또 채권각론과 물권법을 청강을 하게 되면서 법학에 어느 정도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자신할 수 없지만, 형법, 민법을 각각 2회독씩 하고 경제학, 헌법을 한번 읽고 섭외사법도 한번 훑어본 후 새해를 맞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장했던 한 시기였습니다.

1993년 들어서는 법과목도 문제집 위주로, 문화사, 국사, 독일어도 한 번씩은 읽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목과 경제학을 위주로 했던 까닭에 아쉽게도 문화사, 국사, 독일어를 채 한번을 다 보지 못하고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과목은 비교적 점수가 좋은 반면, 그렇지 않은 과목은 정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균형있는 자세로 2교시 과목에 공부시간을 배정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첫 시험이었습니다.

2. 1차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요즈음 주변에서 보면 첫째 1차 시험에 실패하고 나면 8~9월까지의 4~5개월 동안 2차과목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1차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동차로 합격하시는 비율도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시험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대신 헌법, 민법, 형법을 1차시험기간 중 심도있게 공부해두면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따로 2차과목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8명쯤이 1차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택했는데 몇 과목에 치중되지 않는 균형있는 시간안배와 진도맞추기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 힘든 시험기간을 힘든 줄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어 스터디를 4명이서 꾸렸는데, 92년부터 갑자기 독일어의 난이도가 높아진 관계로 이전보다 그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대 독일어, 초급독문해석, 문제집 두권을 차례로, 그리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독일어 점수가 썩 좋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제 독일어를 전략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교과서 한권, 문제집 한권을 기본으로 하고 과목에 따라 기출문제집을 풀기도 하였는데, 공부량을 한정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책과 문제집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4년 3월에 1차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발표 전까지 충주에 내려가 지냈습니다. 법서있는 쪽으로는 얼굴도 돌리기 싫을 만큼 진저리가 쳐졌고,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있었기 때문입니다.

3. 2차 수험기간

합격자발표가 있는 후 서울로 올라와 연출 연출로 해서 탄탄한 스터디에 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지내면 지낸 만큼 보복이 따르는 지라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실력차이가 너무 나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기를 하나, 그렇다고 특별나게 성실하기를 하나, 몇 주를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지진아 노릇을 하다가 잠정적으로 스터디

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소송법은 1회독 반 정도를 보고 상법, 행정법은 다 보지도 못한 채 2차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꼭 붙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관련조문을 찾아 답안지를 메우면서 두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나흘간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2차 시험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4년 2차시험이 끝난 직후입니다. 8월말 경부터 스터디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었으므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진아로 머무느냐가 결정되리라는 생각에 그 무더위 속에서도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서 책과 씨름하였습니다. 의욕은 앞서고 책장은 넘어가지 않는데 날씨는 너무 더워서 밤잠은 설치고 하는 날들이 계속되니 두통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3일만에 방을 보러 다니고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가끔은 극단적인 처방이 삶에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림동 산등성 바로 밑에 방을 얻으니 그 더위 속에서도 밤이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1회독하고 행정법 I을 2회독하고 상법을 1회독 한 상태에서 8월 22일부터 스터디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와 함께 행정법연습과 어음수표법, 형법연습을 청강하였습니다. 행정법은 특히 사례문제를 보면 논점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어음수표법은 난해한 과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참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수업과 시험공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특히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깊고 오래 남는 듯합니다.

시험 전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은 12월 말까지 1회독, 3월 중순까지 2회독, 5월 10일 정도까지의 3회독을 하고 나머지 50일 정도 동안 각자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요일은 쉬는 날로 계산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2회독부터는 불안한 마음에 일요일까지 공부시간으로 넣고 휴식을 각자 알아서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거의 오차없이 시행되었는데 그 뒤에는 스터디 내 최고학번 선배님의 성실함과 단호함이 숨어있습니다. 덕분에 모의시험이 미루어지리라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었고, 공부 안될 때도 거의 머릿속에 책을 구겨넣는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몇시간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름정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때 두 번을 빼고는 모의시험에 빠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시험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달게 받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시험기간 중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기간동안의 정리방법은 스터디 성원마다 달랐는데 저는 후배와 함께 1994년 수석을 하신 분의 조연대로 과목마다 똑같이 3일, 2일, 1일씩을 배정하여 3회독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시간 내에 다 보지 못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2회독을 한 셈 정도 되지만 되도록 계획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회독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있다면 마지막 정리기간 동안 좀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 여러번 정리하는 것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4. 2차 시험기간 중의 생활

2차 시험기간 중 저는 성균관대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면서 성대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4시에 시험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씻고 저녁을 먹은 다음 한 시간정도 눈을 붙인 다음 6시쯤 도서관으로 향해서 새벽 2~3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밤잠은 평균 세 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6시쯤 다시 일어나 아침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러 교실로 들어가는 생활을 제법 규칙적으로 해내었습니다. 시험기간 동안 잠은 몇시간이나 자야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고, 또 저 역시 했었습니다만, 정신적·육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자신의 상태에 맞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시험 전날은 헌법과 행정법을 보고 시험보는 첫째날 아침에는 전통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둘째날은 주로 상법을 꼼꼼히 보아두었습니다. 셋째날, 넷째날은 소송법만을 보고 민법과 형법은 특별히 외워야 할 부분만을 보았습니다. 소송법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에게는 보다 낯선 과목이라 그 전날에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적절한 용어구사가 힘든 과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러한 특성 때문에 조금만 매끄럽게 그리고 빠짐없이 쓴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전략과목이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빠짐없이 보아두는 태도와 책상 위에 놓여있는 법전,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전날의 공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지적됩니다. 곧바로 본 문제가 '뜬'다면,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에 가까

이 간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심리적인 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문제는 참으로 의외의 문제였고, 교과서를 꼼꼼히 공부하신 분이라도 답안을 쓰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받는 순간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교실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 역시 순간 당황했지만, 동료수험생들의 그런 태도가 저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한 문제만 제대로 쓰면 과락은 면한다'고 스스로를 어르고 달래면서 답안지를 메워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그 전날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거의 정독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신감이 가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 의외로 논점이 떠오르더군요. 한 문제를 더 찍었느냐 하는 것 보다 의외의 문제를 받아든 그 시간에 얼마나 평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시험이 끝난 후 방에 들어와 짐을 싸면서 두 시간을 엉엉 울었습니다. 막상 합격이 된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 때문에 후련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지만, 그 당시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억제되었던 슬픔으로부터 해방, 끊어질 것 같던 팽팽한 긴장감으로부터의 해방, 기계 같은 생활로부터의 해방!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수험생활이 최고는 아니었을 지언정 참으로 최선이었으므로...

IV. 수험방법

1차시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고 또 특히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므로 1차대비 방안에 대

해서는 앞의 글로 대신하려합니다. 다음은 주로 2차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과 공부방법을 서술하겠습니다.

1. 답안작성

제가 저보다 실력이 월등히 나은 분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은 원인이 있다면 10장짜리 답안지를 보다 잘 활용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안지는 나의 유일한 싸움터'이며 '답안지를 통해서만이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답안지를 통해서 어떻게 잘 보일까'를 끊임 없이 연구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으시면 너무나 당연하고 원칙적인 것이라고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첫째, 글씨를 깨끗이 쓸 것, 둘째 앞 뒤 줄을 맞추어 쓰고 세 줄을 기준으로 한칸씩 띄우되 될 수 있으면 문장을 끝내고 띄울 것, 셋째 되도록 배점에 맞게 양을 조절하여 10장을 다 쓸 것(즉 50점, 25점, 25점으로 세문제가 나면 5장, 2장 반, 2장 반을 쓰는 것입니다)입니다. 어렵죠? 글씨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테고, 속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글씨가 악필이신 분들은 덩달아 속도도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숨이 저절로 나오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노력한 만큼 확실히 개선이 되더군요. 자신이 처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 힘을 기울이신다면 적어도 평균 1~2점은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점위원들의 강평을 보면 글씨나 답안의 정돈상태에 의한 점수의 차이를 없애려고 많은 애를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고 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첫째, 관련조문을 빠짐없이 쓸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실정법의 해석학이기 때문에 특정 조문을 반드시 써주어야만 바른 공부가 되었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둘째, 학설의 검토를 풍부하게 할 것,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교과서의 근거를 그대로 기술하되, 암기해서 서술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즉 설득력있게 자신의 논지를 펴는 것이 채점자에게 호감을 주어 전반적인 상승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것, 헌법은 사회과학과 법학의 중간쯤에 존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주로 문제로 출제되고, 출제위원들께서 원하시는 답안도 헌법을 법전 속에, 혹은 어떤 이론 틀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현실을 향해서 헌법적인 시각을 열어두고 있는 답안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헌법현실에 대한 논평을 가하는 것이 득점요소라고 봅니다.

행정법은 총론적인 단일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서 관련조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만큼 관계조문을 적시할 경우 얻게 되는 것이 많다고 해야겠죠. 또한 아직 행정법은 교수님들마다 쓰시는 용어부터 다르기 때문에 여러 책을 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사용에서부터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과서를 선택해 익숙해질 때까지 보고 정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다른 견해를 참조하는 정도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상법은 조문수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법전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면, 그래서 관련조문을 잘 찾아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답안의 50%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본래 회사와 관련된, 혹은 어음거래와 관련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학문이므로 각 문제에 제기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지점을 서문부분에서 적시하면 매우 호감을 주게 됩니다.

민법은 워낙 방대하고 역사가 오래되어 학문의 발전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쓰겠다고 생각하면 공부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과목이므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내용과 법전의 조문을 이어서 서술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소송법과목은 아무래도 실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해 써주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으로 답안을 시작한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씩은 흠어져있는 조문을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평소에 조금 귀찮더라도 책을 덮고 스스로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사례다운 사례가 출제되므로 사례문제의 중요도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문제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끝까지 일관된 시각으로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넷째, 강약이 있는 답안을 작성할 것, 강약이 있는 답안이란 주로 단문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교과서나 모범답안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자칫 특색 없고 평면적인 답안이 되기 일

쑤입니다. 전형적인 문제가 나올수록 고득점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문제라는 것은 많이 예상되었던 문제를 말하므로 평소에 서론에서 좀 '뒀'수 없을까, 특히 강조점을 두어 많이 서술할 부분은 없을까, 남이 안 쓰는 관례 하나라도 더 써볼까,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슬럼프

슬럼프가 찾아왔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어느 코메디프로의 대사처럼 연신 "참아야 하느니라.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고 되뇌이면서 살아온 3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구체적인 극복방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기분전환을 위해 어떤 씩박한 슬럼프 극복방안을 찾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책상 앞에서 버티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수준보다 더 한심한 것은 자신감의 상실이라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며칠 집에서 쉬면서 자신에게 관대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절대 과장하지 않는 것, 허점투성이인 인간이기에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입니다.

저는 특히나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잠과의 투쟁으로 아침을 허비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시공부는 장기전이

므로 적당한 수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와서 세 번 이상 잔다든지 한번자면 30분 이상을 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수면 시간이 자신의 상태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스터디

저는 1차와 2차준비 시 각각 스터디를 했습니다. 2차 스터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1차 스터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마음씨 좋고 성실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터디의 장점으로는 정해진 진도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문나는 점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동병상련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수험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 보았을 때 혼자 공부하는 경우 자꾸 진도를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는 분, 학교에서 법학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지 않는 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스터디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스터디성원들끼리 푹푹 멍쳐 노는 것은 안 됩니다.

2차 스터디의 경우, 저는 수험생활의 80%정도를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할 때 성실하신 분, 2차에 경험이 있으신 분,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분, 친화력이 남다르신 분이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어야하고 구성원은 연령, 성별에 있어서 좀 다양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도 생각대로 되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끝까지 결속력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점심과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주로 우유팩을 차거

나 산책을 하였고, 저녁식사 후에는 사례풀기를 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진도에 맞추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간단히 목차를 잡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각자가 보는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효과를 가져왔고, 3회독을 할 때는 거의 출제할 문제가 없을 만큼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례는 거의 학설의 대립지점에어 나오므로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학설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며, 한번 치열하게 토론한 것은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의시험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 저녁에 치렀습니다. 1, 2회독은 먼저 합격한 후배들이 돌아가면서 출제하고 강평을 해주었는데 답안에 틀을 잡고 문제마다 강조되어야 할 지점들을 찾는 감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3회독은 스터디성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출제하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저희는 모의시험을 보고 난 후 답안지를 서로 돌려보고 토론하는 과정을 중시하였습니다. 타인의 답안지를 보면 자신의 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고, 채점자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답안 중 서술이 잘 된 부분만을 모아놓으면 어느 모범답안 보다도 생생하고 풍부한 답안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지치고 지루하여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는데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만 30분이라도 서로의 답안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 날 두시간 더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3회독이 끝나고 마무리 기간 중에, 저희 스터디는 단문대비로 과목당 예상문제를 뽑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각자가 가진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점심, 저녁식사를 위해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용을 암기하고 정리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터디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웍입니다. 자신이 가진 의문점이나 자료를 늘 타인에게 제시하고 개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부상조는 전원합격의 지름길이며, 배타적 태도는 공도동망의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스터디 성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공동이해관계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교과서와 문제집의 선택

교과서를 볼 것인가, 문제집을 볼 것인가 또는 어느 교과서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험생들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저도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교재의 선택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되도록 교과서를 볼 것, 50점짜리 문제가 주로 사례로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중간중간 사례와 함께 서술되어 자연스럽게 사례를 익히도록 하는 장점과 문제집으로 볼 때보다 교과서로 보는 경우 기억에 오래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이미 선배 수험생들에 의해 수험서로서의 가치가 검증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셋째, 한번 선택한 책은 절대 바꾸지 않는 이

유는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빠진 부분이 많다든지, 서술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는 이유로 중간에 주교재를 교체하는데, 완벽한 책이 있을리 없어 집중팔구는 후회를 하더군요.

5. 단권화와 서브노트

서브노트를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을 착실히 들었거나, 공부기간이 오래되어 각 과목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브노트 작성에 엄청난 노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공들여 해놓아도 평면적인 요약집에 그치게 되어 교과서의 줄친 부분만 보느니만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라면 서브노트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기를 권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단권화란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마음에 안드는 주교재의 서술부분을 자기 마음에 들게 고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게 되면 교과서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모조리 끼워넣고 주체하지 못해 찢절때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몇 년간의 예상문제, 각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중요도를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출제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모조리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시잡지의 모범답안을 검토하면서 교과서에 완전히 빠져있는 부분은 끼어넣되, 조금이라도 서술이 된 부분은 교과서의 흐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여백에 필요한 부분을 써넣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주로 써넣게 되는 것은 관련판례, 개정안의 내용 등과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대로 생각하는 설득력있는 근거였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모범답안을 주로 하되 교수님들의 강평부분은 빠짐없이 읽어두었습니다. 2회독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런 작업이 개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판례는 노란색, 통설은 파란색, 소수설은 빨간색하는 식으로 색깔을 정하여 색연필로 그어주었는데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시각적으로 눈에 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시험만큼 정직한 것을 만나기란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땀 흘려 공부하지 않고 요행히 합격을 주는 경우란 없으며, 영광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시험 보기 전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패배를 곱씹는 분이라면 설사 좋은 성적을 얻을 만큼의 노력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합격이라는 기쁨이 그분을 찾아가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은 일종의 자기최면으로 노력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